

## 대학생들의 부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성역할 특성과 가족주의 가치관

김민희<sup>†</sup>

홍주연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본 연구는 미래 부모부양의 주체가 될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양의지를 설명하는 변인들의 영향을 파악하고, 남녀 대학생의 부양관련 변인들의 차이와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남녀 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미래 부양의지, 성역할 특성인 주도성과 관계성, 가족주의와 효 의식을 측정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남녀 대학생의 부양의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 대학생들의 도구적 부양의지와 신체적 부양의지가 남자 대학생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부양의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부양의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성별, 형제 수, 가족주의, 효 의식, 그리고 관계성이었다. 즉, 가족주의와 효 의식이 높을수록, 관계성이 높을수록, 형제의 수가 적을수록 부양의지가 높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부양의지가 높았다. 반면, 주도성은 부양의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의 부양의지를 설명하는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남녀 집단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 대학생의 전체 부양의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효 의식과 관계성이었고, 여자 대학생은 가족주의, 효 의식, 관계성이 부양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양의지, 성역할 특성, 주도성, 관계성, 가족주의, 효 의식, 성차

---

<sup>†</sup> 교신저자 : 김민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E-mail : pseudo@kcg.ac.kr

저 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가 처음으로 60을 넘어섰는데 이는 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가 60명이 넘었음을 의미한다. 생산 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부양지수도 2009년에는 14.7%로 10년 전(1999년) 9.6%에 비해 5.1% 증가하였다(통계청, 2009). 이러한 인구학적 분포의 변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 일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8년부터 공적 부양이 제도화되었으나 여전히 노인 부양의 주된 책임은 가족원에게 있다. 일부 노인이 공적 부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가족 부양자의 부양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특히 노인 부양 중 정서적 부양은 공적 부양으로 충족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적 부양은 사적인 가족 부양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Jette, Tennstedt, & Crawford, 1995). 지역 사회 중심의 장기요양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을 돌보는 책임을 80% 이상 가족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며(Family Caregiver Alliance, 2003), 실제로 고령화 사회로 넘어간 나라들에서 여성들이 자녀양육을 위해 쓰는 시간은 평균 5-6년 정도 짧아진 것에 비해 노인 부양을 하는데 쓰는 기간은 18년에 이른다(Dwyer & Coward, 1992). 전통적인 노인부양의식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가족 부양의 비율이 외국에 비해 더 높은 실정이다(김윤정, 2006; 윤현숙, 차홍봉, 조세희, 2000), 우리나라에서 중년기에 이르러 부모를 부양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노인부양은 부양을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부양을 제공하는 부양자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 가족 부양자가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의식이 명확해지고 개인적 성장이 가능하며(Kramer, 1997), 자녀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고 종교적 신념을 수행한다는 만족감을 느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Lee, Kim, & You, 1997), 현재까지 수행된 대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신체적, 인지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을 부양하게 되면 부양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주어 매우 힘든 경험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장윤옥, 정서린, 2004; Brody, 1985).

그런데 이처럼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부양의 책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의 몫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남녀평등 지수가 비교적 높은 미국의 경우도 부양자의 63%가 여성이며(Spector, 2000), 한국은 이보다 더 높은 74.3%가 여성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경희, 보건사회연구원, 2001).

#### 부양과 성차

부양에 대한 성차를 본 연구들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주된 부양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고, 더 여러 가지 종류의 부양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피부양자를 시설에 입소시키는 시기가 더 늦고, 부양을 하면서 사직하는 경우가 더 많다(Allen, Goldscheider, & Ciambone, 1994; Almborg, Jansson, & Grafstrom, 1998; Zarit & Leitsch, 2001; Navaie-Waliser, Spriggs, & Feldman, 2002).

뿐만 아니라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부양을 경험하는데, 여성들은 남성보다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

은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우울감을 경험한다는 것이다(Bookwala & Schultz, 2000; Ingersoll-Dayton & Raschick, 2004.) 또한 여성은 만성 피로와 불면증, 그리고 체중 변화와 같은 신체 문제를 더 많이 호소하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행동도 덜 한다(Burton, Zdaniuk, Schulz, Jackson, & Hirsch, 2003).

배우자 부양을 연구한 Sugiura, Ito, Kutsumi와 Mikami(2009)는 아내들이 남편들에 비해 더 많은 부양 서비스를 남편에게 제공하였고 부양자라는 역할을 더 쉽게 수용했으며 대처 전략으로서 “정서적지지 추구”와 “자발적 몰입”을 사용한 반면, 남편들은 “자택 간호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 즉, 아내들은 부양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몰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양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부양에 대한 남녀 간 성차를 살펴본 미국의 연구에서도 여성과 남성은 부양에 대해 상이한 접근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주부양자로서의 책임을 더 많이 수행하며 훈련을 받지 않고도 복잡한 부양 행동을 더 많이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과 비교하여 부양 외 다른 활동은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Navaic-Waliser, Spriggs & Feldman, 2002).

그렇다면 왜 여성이 부양자의 역할을 더 쉽게 수용하고 더 많은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가? 일부 사회학자들은 현 사회구조가 여성으로 하여금 돌봄의 역할을 하도록 조직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숙현, 2005).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단기 고용인 경우가 많아 가정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해 노인부양을 맡게 되며

인구학적으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명이 더 길고 초혼 연령도 낮아 노인수발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구조는 부양이 여성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도록 도와주었고 돌봄은 여성들의 정체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 부양을 단순히 성에 국한해서 연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Walker (1992)는 모든 여성들이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남성들의 상당수가 매우 양육적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부양 연구는 한 성별 내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양을 살펴볼 때 성별보다는 한 개인의 심리적인 특징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Shirey와 Summer (2000)는 남편과 아내의 부양 시간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Calasanti와 Bowen(2006)은 성별과 부양책임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 부양과 성역할 특성

성은 고정된 생물학적인 개념인 반면 성 역할은 변화 가능한 사회학적 개념이다. 성역할은 사회 문화권 내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일련의 사고, 감정, 행동이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 한 개인의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강력한 사회적 경험 중 하나이다(Kimmel, 2000). 그렇기 때문에 성 역할에 대한 개인차가 있기는 있지만 성 역할에 대한 구분은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Zenmore, Fiske, & Kim, 2000).

사회화 과정을 통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

해 타인을 돌보고 부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게 된다(Martire, Stephens, & Townsend, 2000).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성에 대한 부양기대가 더 높기 때문에 여성부양자들이 더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부양에 대해 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고 보고 있다(Collins & Jones, 1997; Rose-Rego, Strauss, & Smyth, 1998).

도구적인 부양을 살펴본 Lee, Dwyer and Coward(1992)의 연구에서 여성들은 식사준비, 청소, 빨래와 같은 집안일을 부양으로 지각하지 않은 반면 남성들은 동일한 행동을 부양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부양을 책임지기 이전에는 집안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Brody(1981)는 부양행동에서 나타나는 성차는 남성들이 부양책임이 더 낮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성역할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특정 성역할과 관련이 낮은 교통수단 제공하거나 심부름해주기나 같은 일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orowitz, 1985). 나아가 성역할 특성과 부양을 살펴본 Harrison과 Neufeld(1997)의 연구에서 여성 부양자들을 대상으로 18개월에 걸쳐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들이 주도성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양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는 여성이 가족원을 보살펴야 한다는 사회적 규준에 자신을 맞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여성 부양자들을 연구한 Louderback(2005)은 이들이 부양 부담을 견딜 수 있도록 전형적인 여성 성 역할 특징을 내면화했으며 관계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부양행동 및 부양의지에 미치는 요인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생물학적인 정보보다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

는 성역할 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 가족관련 가치관과 부양

Aranda와 Knight(1997)는 노인부양의 과정에서 가족적 가치가 부양자의 부양부담과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제안하였다. 즉, 부양상황이 비슷할지라도 부양자의 가치가 다르다면, 부양자는 노인부양을 다른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고,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대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상이한 노인부양 결과를 초래한다.

Kabitsi와 Powers(2002)는 그리스인들과 미국인의 부양 동기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스인들은 미국인에 비해 가족평화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매우 강하였는데, 이는 그리스인들이 개인 중심적이기보다는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해석하였다. 또한 나이든 그리스 여성들은 미국 여성들에 비해 가족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어머니 또는 부인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나이든 미국 여성들은 자신이 배우자를 부양하는 이유로서 경제적 부담 요인을 언급한 반면, 그리스 여성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에 비추어볼 때, 배우자 부양에 있어서 가족주의와 같은 문화적 가치가 부양자의 주관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에서 노인 부양의 주 부양 대상자는 기능취약 노인이나 인지 장애가 있는 노인이 대부분인 반면(Bowling & Browne, 1991), 우리나라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다양한 행동이나 의식이 부양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족주의나 효사상은 우리나라 부양에서 더 중요한 측면이다(김미경, 송다영, 2002).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부양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는 유교주의에 바탕을 둔 경로효친사상이다. 유교주의에서는 나이 어린 사람은 노인을 공경하고, 자손은 부모와 조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임을 강조한다(김정현 & Knight, 2009). 이러한 효 의식은 현재까지도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전미애, 2006).

경로효친 사상과 함께 가족주의 또한 노인 부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족을 다른 집단이나 개인보다 우위에 두는 가족주의 가치관은 노인부양을 포함한 가족생활을 위해 젊은 가족구성원이 연륜 있는 가족구성원의 뜻을 존중하고 따름으로써 가족구성원 간의 조화로운 관계, 협동, 상호의존적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을 강조한다(Sung, 1994).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부모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경순, 1999). 그러나 근래에는 이러한 가족 관련 가치관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감소되었다는 연구도 있어(김정란, 김경신, 2009)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출산을 감소에 따른 부양 인구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로 노인 부양을 여성이 충족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생산 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미래의 노인 부양의 주체가 될 현재의 20대 여성과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그들의 생물학적인 성, 성역할 특성,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가 부양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가설은 생물학적인 성별보다는 성역할 사회화와 사회구조에 의해 형성된 성역할 특성이 부양의지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기존의 부양 연구에서 살펴 본 부양부담이나 부양 스트레스가 아닌 부양의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부양의지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태도로 객관적인 부양과업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주관적인 부담감을 경험하면서 부양자가 미래 부양을 수행하려는 의지이다. 현재노인에게 부양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노부모가 부양을 필요로 할 경우, 부양을 제공할 미래의 부양의도를 보는 부양의지는 미래의 부양 주체인 20대를 대상으로 노인부양을 보는데 보다 더 적합한 요인이다(이현지, 2007).

## 방 법

### 참가자와 절차

본 연구의 참가자는 서울과 강원도 소재의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350명이었다. 이 중 여자는 242명, 남자는 108명이었고, 평균연령은 21.30세( $SD=3.06$ )였다. 조사는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우선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였고, 이후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으며, 연구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는 추가 학점을 부여하였다. 남녀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에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da = .954,  $\chi^2 = 16.160, p < .05$ ). 하지만 개별 예측 변인이 남녀집단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연령만이 유의미하였으며(Wilks' Lamda = .962,  $F = 13.559, p < .001$ ), 다른 변인들은 남

표 1. 남 녀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기술분포

변인	여자(242명)	남자(108명)	변인	여자(242명)	남자(108명)
연령	18세-31세	18-34세	형제 수	혼자 16명(6.6%)	혼자 15명(13.9%)
	평균 20.91세(2.74세)	평균 22.19세(3.53세)		2명 159명(65.7%)	2명 73명(67.6%)
건강 수준	매우 나쁨 0명(0%)	매우 나쁨 1명(0.9%)	출생 순위	3명 52명(21.5%)	3명 12명(11.1%)
	좋지 않음 29명(12%)	좋지 않음 6명(5.6%)		4명 11명(4.5%)	4명 3명(2.8%)
	보통임 73명(30.2%)	보통임 30명(27.8%)		5명 2명(0.8%)	5명 3명(2.8%)
	좋은편임 103명(42.6%)	좋은 편임 51명(47.2%)		무응답 2명(0.8%)	6명 1명(0.9%)
	매우 좋음 37명(15.3%)	매우 좋음 20명(18.5%)			7명 1명(0.9%)
경제 수준	매우 나쁨 2명(0.8%)	매우 나쁨 1명(0.9%)	종교	외동 15명(6.2%)	외동 11명(10.2%)
	좋지않음 38명(15.7%)	좋지않음 20명(18.5%)		만이 127명(52.5%)	만이 46명(42.6%)
	보통임 126명(52.1%)	보통임 50명(46.3%)		중간 29명(12.0%)	중간 7명(6.5%)
	좋은편임 71명(29.3%)	좋은편임 33명(30.6%)		막내 70명(28.9%)	막내 42명(38.9%)
	매우 좋음 5명(2.1%)	매우 좋음 4명(3.7%)		무응답 1명(0.4%)	무응답 1명(0.9%)
			무교 119명(49.2%)	무교 57명(52.8%)	
			기독교 58명(24.0%)	기독교 23명(21.3%)	
			천주교 41명(16.9%)	천주교 13명(12.0%)	
			불교 20명(8.3%)	불교 14명(13.0%)	
			기타 2명(0.8%)	기타 1명(0.9%)	
			무응답 2명(0.8%)		

녀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인구통계학적 분포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 측정 도구

#### 부양의지

대학생들의 미래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지는 Abell(2001)에 의해 개발된 부양의지척도(Willingness to Care Scale: WCS)를 이현지(200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양의지는 피부양자에 대해 정서적, 신체적,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공식적 부양자의 태도로 정의된다(McDonell, Abell, & Miller, 1991). 부양의지를 측정하는 것은 미래에 질병상태에

있는 사람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부양자 부담과는 다르다. WCS는 정서적 측면의 부양, 신체적 측면의 부양, 도구적 측면의 부양인 3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요인에 10개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부양의 예 문항은 ‘부모님이 우울해하시면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부모님이 화가 나면 이야기를 들어드릴 것이다’이다. 도구적 부양의 예 문항은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해 드릴 것이다’, ‘부모님의 빨래를 해 드릴 것이다’이다. 신체적 부양의 예 문항은 ‘부모님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대소변 처리를 해드릴 것이다’, ‘부모님이 목욕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이다. 이현지(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0.86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 정서적 부양의 Cronbach  $\alpha$ 는 .91, 도구적 부양의 Cronbach  $\alpha$ 는 .90, 신체적 부양의 Cronbach  $\alpha$ 는 .93이고 척도의 전체 Cronbach  $\alpha$ 는 .96이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해당하는지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으며(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자의 부양의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성역할 특성

Spence와 Helmreich(1979)가 개발한 확장된 성역할 특성 질문지(Extended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EPAQ)를 김성희(2009)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EPAQ의 원 척도는 주도성, 관계성, 경직된 주도성, 경직된 관계성을 재는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경직된 주도성과 경직된 관계성은 극단적인 주도성과 관계성을 재는 것으로 부적응이나 병리와의 관련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주도성과 관계성을 측정하는 16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평정하도록 하였다(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7점은 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 주도성의 Cronbach  $\alpha$ 는 .77, 관계성의 Cronbach  $\alpha$ 는 .82이다.

### 가족관련 가치관

가족과 관련된 가치는 가족주의와 효 의식으로 측정하였다. 가족주의는 Cuellar, Arnold와 Maldonado(1995)가 개발한 가족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주의 척도의 문항들은 가족의 상호의존과 충성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정도, 어른이 존경받고, 어른에게 순종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으며(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79이다.

효 의식은 성규탁(1994)이 개발한 효 의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 효 의식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효를 부모에 대한 존경이나 책임, 의무, 부모에 대한 희생으로 인지하는 가치관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효 의식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70이다.

###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건강수준, 경제수준, 형제의 수, 종교에 대해 측정하였다.

## 결 과

### 부양 관련 변인들의 남녀 비교

부양의지의 하위요소인 정서적 부양, 도구적 부양, 신체적 부양 모두에서 여자 대학생의 평균이 남자 대학생보다 높았으나, 정서적 부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도구적 부양( $t=-3.022, p<.01$ )과 신체적 부양( $t=-2.264, p<.05$ )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부양의지는 정서적 부양이 가장 높았고, 신체적 부양이 가장 낮았다. 성역할 특성 중 주도성은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뚜렷하게 높았으나

( $t=3.847, p < .001$ ) 관계성은 남녀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주의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t=4.166, p < .001$ ), 효 의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상태, 경제수준, 형제 수에 있어서는 남녀 간 차이가 없었다. 부양 관련 변인들의 남녀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부양 관련 변인들 간 상관**

정서적 부양과 도구적 부양, 신체적 부양은 서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685~.787), 부양 의지의 하위요소인 정서적 부양, 도구적 부양, 신체적 부양 모두 가족주의, 효 의식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313~.396). 주도성은 정서적 부양, 도구적 부양, 신체적 부양 모두와 상관을 보이지 않은 반면, 관계성은 정서적 부양, 도구적 부양, 신체적 부양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272~.357). 주도성은 가족주의, 효 의식과 상관을 보이지 않은

반면, 관계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185~.194). 부양 관련 변인들 간 상관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부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분석**

다음으로 부양의지의 각 하위요소인 정서적 부양의지, 도구적 부양의지, 신체적 부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양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부양의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부양의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 인구학적 변인, 가족관련 가치관 변인, 성역할 특성 변인을 입력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각 부양의지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미미하였으며, 표 3에서 정서적 부양과 도구적 부양, 신체적 부양은 서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므로 하위 부양의지를 합해 전체 부양의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측정 변인들의 남녀 비교

연령집단	남자(108명)	여자(242명)	t 값
정서적 부양	4.15(.56)	4.20(.63)	-.614
도구적 부양	4.05(.65)	4.27(.62)	-3.011**
신체적 부양	3.99(.68)	4.17(.70)	-2.264*
주도성	4.59(.84)	4.21(.85)	3.847***
관계성	4.91(.92)	5.00(.82)	-.879
가족주의	2.90(.49)	2.65(.53)	4.166***
효 의식	3.45(.51)	3.49(.55)	-.507
건강상태	3.77(.85)	3.61(.89)	1.549
경제수준	3.18(.81)	3.16(.74)	.168
형제수	2.19(.98)	2.25(.71)	-.574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3. 측정 변인들 간 상관

	주도성	관계성	가족주의	효 의식	정서적 부양	도구적 부양	신체적 부양
주도성	1	.128*	.042	-.006	.074	-.024	-.009
관계성		1	.185**	.194**	.357**	.272**	.328**
가족주의			1	.518**	.396**	.313**	.362**
효 의식				1	.318**	.367**	.347**
정서적 부양					1	.685**	.699**
도구적 부양						1	.787**
신체적 부양							1

\*  $p < .05$ , \*\*  $p < .01$ , \*\*\*  $p < .001$ .

전체 부양의지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모델은 인구학적 변인, 가족관련 가치관 변인, 성역할 특성 변인을 포함하는 모델 3으로서 약

2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인들 중 부양의지를 예측하는 변인은 성별과 형제 수로, 여성이 남성보다 부양의지

표 4. 부양의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Model 1		Model 2		Model 3	
		$\beta$	$t$	$\beta$	$t$	$\beta$	$t$
인구학적 변인	연령	-.002	-2.226	-.001	-.056	-.002	-.177
	성별	-.162	-2.368*	-.235	-3.727**	-.206	-3.335*
	건강수준	.053	1.481	.027	.837	.003	.088
	경제수준	.084	2.048*	.034	.908	.022	.605
	형제수	-.033	-.854	-.059	-1.721	-.067	-2.023*
가족관련 가치관	가족주의			.270	5.413***	.313	5.049***
	효 의식			.287	3.762***	.199	3.370***
성역할 특성	주도성					-.002	-.073
	관계성					.177	5.430***
	$F$	2.594*		15.453**		11.861***	
	$R^2$	.036		.240		.239	
	$R^2$ Change			.204***		.031***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5. 부양의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성차

		남자		여자	
		$\beta$	$t$	$\beta$	$t$
	연령	.011	.812	-.008	-.714
인구학적 변인	건강수준	-.004	-.067	.008	.218
	경제수준	-.058	-.937	.064	1.408
	형제수	-.052	-1.061	-.071	-1.567
가족관련 가치관	가족주의	.216	1.887	.350	4.660***
	효 의식	.225	2.102*	.181	2.533*
성역할 특성	주도성	.031	.515	-.017	-.421
	관계성	.199	3.711***	.158	3.808***
$F$		5.094***		13.009***	
$R^2$		.292		.309	

\*  $p < .05$ , \*\*  $p < .01$ , \*\*\*  $p < .001$ .

가 더 높고( $\beta = -.248, t = -3.547, p < .001$ ), 형제수가 많을수록 부양의지는 더 낮아( $\beta = -.079, t = -2.120, p < .05$ ) 유의미하였으나, 그 설명력은 3.6%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가족관련 가치관인 가족주의와 효 의식은 모두 부양의지를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주의가 높을수록( $\beta = .243, t = 3.455, p < .001$ ), 그리고 효 의식( $\beta = .263, t = 3.936, p < .001$ )이 높을수록 부양의지가 더 높았다. 성역할 특성은 관계성만이 부양의지를 예측하였는데, 관계성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부양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38, t = 3.738, p < .001$ ). 부양의지를 설명하는 요인들에 관한 회귀분석은 표 4에 제시하였다.

부양관련 변인들의 남녀 차이검증에서 부양 의지의 성차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성별이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확인하였

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남녀의 차이가 과연 어떤 변인들에 기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전체 부양의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남성의 경우는 인구학적 변인, 가족관련 가치관 변인, 성역할 특성 변인 중 효 의식( $\beta = .225, t = 2.102, p < .05$ )과 관계성( $\beta = .199, t = 3.711, p < .001$ )만이 부양의지를 예측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주의( $\beta = .350, t = 4.660, p < .001$ ), 효 의식( $\beta = .181, t = 2.533, p < .05$ ), 관계성( $\beta = .158, t = 3.808, p < .001$ )이 부양의지를 예측하였다. 부양의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성별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인구학적 분포의 변화로 인해 노

인 부양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미래의 부양 주체가 될 대학생들의 향후 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인 부양의지를 측정하고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관심 변인인 부양의지는 현재는 부양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부모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부양을 제공할 미래의 부양의도를 의미한다(McDonell, Abell, & Miller, 1991). 따라서 부양의지는 부양 부담이나 부양과업과는 구분되며, 부양자가 부양과업을 수행하려는 의지로서 노인부양에서 가족의 지속적인 관여를 위해 반드시 분석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이현지, 2007).

특히 본 연구는 성역할 특성인 주도성과 관계성, 그리고 가족주의 가치관이나 효 의식이 부양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의지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의지의 하위요소 중 정서적 부양에 있어서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으나, 도구적 부양과 신체적 부양은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높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학생들의 부양의지 혹은 부양의무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은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양의식이 더 높다는 국내 연구들(최정혜, 1997; 한경순, 1999)이 있는 반면, 아들보다 딸이 부모부양의 책임이 더 높다는 서구의 연구결과들(Gray, Dwyer, & Coward, 1993; Walker & Pratt, 1991)도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보다 부모부양에 대한 생각이 더 긍정적이라는 조운주와 이숙현(2004)의 연구결과가 있었으며, 한경순(1999)의 연구에

서는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의 부양의무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 결과들은 아마도 연구시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연구들과는 달리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부모 부양에 대해 더 높은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가족관계가 전통적 부계사회에서 점차 서구화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젊은 계층에서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둘째, 성역할 특성에 있어서 주도성은 남자 대학생들이 여자 대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관계성은 남자 대학생들과 여자 대학생들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 고,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발달과 변화에 관한 최임숙(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최임숙(2004)의 연구에서 남자의 경우는 대학생으로 진학하면서 양성성 유형을 가지게 되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대학을 거치면서 관계성이 발달해간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발달의 결과로 대학생 남자의 경우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핵심인 주도성과 관계성을 모두 가지게 되는 반면, 여자 대학생은 낮은 주도성과 높은 관계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van de Vijver(2007)도 성역할의 세대차를 분석하면서 현 세대는 상이한 사회화 과정으로 인해 과거 세대와는 다른 성역할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셋째, 가족주의 가치관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한경순, 199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며,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리를 지향하는 보수적 가치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부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위계적 회귀 분석의 결과, 성별, 형제 수, 가족주의 사상, 효 의식, 관계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부양의지가 높고, 형제 수가 적을수록 부양의지가 높으며, 가족주의나 효 의식이 높을수록 부양의지가 높았다. 가족주의나 효 의식이 부양의무에 중요한 요인임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확인되었는데, 김송애와 조병은(1991)의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부모부양 의무감이 높았고, 실제 부양행동과도 정적인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가장 흥미로운 것은 성역할 특성인 관계성은 부양의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주도성은 부양의지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부양의지 혹은 부양책임이 주도성보다는 대인간 관계와 사람들과의 친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부양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남녀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해보았다. 남자 대학생들은 효 의식과 관계성이 부양의지를 예측하였지만,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족주의, 효 의식, 관계성이 부양의지를 예측하였다. 가족주의가 여학생의 부양의지에는 영향을 주지만 남학생의 부양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데, 이는 선행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최승원, 정혜정, 서병숙, 1997; 이은경, 1999).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는 왜 가족주의 태도가 남학생들의 부양의지에만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부양의지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가족주의 가치관, 효 의식, 가족 친밀감, 가족 기능, 그 외 인구학적 변인들과 같은 개별적 요인이 부양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수준이었던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주의와 효 의식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역할 특성인 주도성과 관계성을 포함시킴으로써 대학생들의 미래 부모 부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다. 특히 부양의지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성역할 특성인 관계성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부양의지에 관련된 최근 연구들에서 여자의 부양의지 혹은 부양의식이 남자보다 높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한 것은 없었으며, 단지 성역할의 사회화 차이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조운주, 이숙현, 200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확인함으로써 생물학적 성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특성이 부양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젊은 세대의 내면화된 가치관이나 심리적 특징에 따라 미래 노인 부양의 형태나 질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김정란, 김경신, 2009), 젊은 세대들의 가족주의와 성역할 특성에 따른 부모 부양의지를 보는 것은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미래 부모 부양 의지를 이해하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나, 대학생들에게 부모 부양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미래의 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연구

대상자들이 실제 부양을 하게 될 20년 이후를 얼마나 잘 예측할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대학생들은 완전한 성인으로 독립하기 전의 단계이므로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상태이다. 대학생들과 부모의 관계는 미래에 이들이 부양을 책임지게 될 중년이 되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시간적으로 부모 부양에 좀 더 가까워진 세대인 중년을 대상으로 가까운 미래에 부딪치게 될 부양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대학생 집단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지를 측정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이 결혼을 통해 맺게 되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문화의 특성상 아직까지도 부모를 모시는 것이 딸 보다는 아들의 책임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지를 확인해본다면 현재 대학생 세대들의 가족관계와 부모부양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화와 서구화로 인해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래 부양자인 대학생들의 부양의지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가족 부양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개입방법 및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장남 중심의 부양에 대한 전통적 고정관념과는 달리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보다 부모 부양에 대한 의지가 더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부양에 관한 방향 설정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미래에는 아들보다는 딸 중심의 가족 부양체계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단순히 성별만이 아닌 개인의 성역할 특성이 부양의지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부양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정부나 사회적 차원에서 가족 부양에 대한 계획 수립과 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부양자들을 위한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여전히 부모 부양을 여성의 역할로만 생각한다면 앞으로 여성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부양이 성별만의 문제가 아닌 성역할과 관련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부양을 기대하기보다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 내에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부양에 개입할 수 있는 사회제도와 법률 혹은 직장 내 제도들을 마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주의와 효 의식 같은 가족관련 가치관이 부양의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는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부양 방향 설정과 제도 모색에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송애, 조병은 (1991). 가족주의 가치관의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03-322.
- 김윤정 (2006). 노인부양부담에 있어 노인부양모델의 효과성 검증. 한국가족관계학, 11(1), 79-102.
- 김미경, 송다영 (2002). 여성의 노인부양부담 완

- 화를 위한 성인지적 정책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정란, 김경신 (2009). 자족기능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133-149.
- 김정현, Knight, B. G. (2009). 문화적 가치가 수발부담 및 사회적 지지를 통해 남가주 한인 가족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대처모델을 적용하여. *한국노년학*, 29(2), 377-394.
- 성규탁 (1994). 현대 한국인이 인식하는 효. *한국노년학*, 14(1), 50-68.
- 윤현숙, 차홍봉, 조세희 (2000). 사회적 지원이 가족의 부양부담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심신기능손상 노인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1), 1-19.
- 이은경 (1999).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노후의 부모부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45-65.
- 이현지 (2007). 만성질환 노인을 돌보는 가족 부양자의 건강관련행동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9, 29-53.
- 전미애 (2006). 효 가치관이 가족 간병인의 적응양식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6(4), 665-680.
- 정경희 (2001).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가족부양자의 수발 부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윤옥, 정서린 (2004).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가정자원이 부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6), 73-88.
- 조윤주, 이숙현 (2004).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와 부모부양의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63-74.
- 최승원, 정혜정, 서병숙 (1997).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15, 83-99.
- 최임숙 (2004). 중, 고,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발달과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213-232.
- 최정혜 (1997). 현대 사회의 가족 관계에서 빛어지는 전통 윤리의 양상. *경남문화연구*, 19(1), 3-37.
- 통계청 (2010). 2009 고령자통계. 통계청
- 한경순 (1999). 남녀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7(9), 13-24.
- Abell, N. (2001). Assessing, willingness to care for persons with AIDS: Validation of a new measur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1, 118-130.
- Allen, S. Goldscheider, F., & Ciambone, D. (1999). Gender roles, marital intimacy, and nomination of spouse as primary caregiver. *Gerontologist*, 39(2), 150-158.
- Almberg, B., Jansson, W., Grafstrom, M., & Winblad B. (1998). Differences between and within genders in caregiving strain: A comparison between caregivers of demented and non-caregivers of non-demented elderly peopl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8(4), 849-858.
- Aranda, M. P., & Knight, B. G. (1997). The influence of ethnicity and culture on the caregiver stress and coping process: A sociocultural review and analysis. *The Gerontologist*, 37, 342-354.
- Bookwala, J., & Schulz, R. (2000). A comparison of primary stressors, secondary stressors, and

- depressive symptoms between elderly caregiving husbands and wives: The caregiver health effects study. *Psychology and Aging*, 15(4), 607-616.
- Bowling, B., & Browne, P. (1991). Social networks, health, and emotional well-being among the oldest old in London. *Journal of Gerontology*, 46(1), S20-S32.
- Brody, E. M. (1981). Women in the middle and family help to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21(5), 471-480.
- Brody, E. M. (1985). Parent care as a normative stress. *The Gerontologist*, 25, 19-29.
- Burton, L. C., Zdaniuk, S. B., Schulz, R., Jackson, S., & Hirsch, C. (2003). Transitions in spousal caregiving. *The Gerontologist*, 43(2), 230-241.
- Calasanti, T., & Bowen, M. E. (2006). Spousal caregiving and crossing gender boundaries: Maintaining gendered identities. *Journal of Aging Studies*, 20, 253-263.
- Collins, C., & Jones, R. (1997). Emotional distress and morbidity in dementia carers: a matched comparison of husbands and w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2(12), 1168-1173.
- Cuéllar I., Arnold, B., & Maldonado, R. (1995). Acculturation Rating Scale for Mexican Americans - II: A Revision of the Original ARSMA Scale.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7(3), 275-304.
- Dwyer, J., & Coward, R. (1992). *Gender, Families, and Elder Care*. Newbury Park, CA: Sage.
- Family Caregiver Alliance. Selected statistics on caregiving. National Center on Caregiving. [http://www.caregiver.org/caregiver/jsp/content\\_node.jsp?nodeid=439](http://www.caregiver.org/caregiver/jsp/content_node.jsp?nodeid=439). Retrieved on June 30, 2010.
- van de Vijer, F. J. R. (2006). Cultural and gender differences in gender-role beliefs, sharing household task and child-care responsibilities, and well-being among immigrants and majority members in the Netherlands. *Sex Roles*, 57(11), 813-824.
- Gray, R. L., Dwyer, J. W., & Coward, R. T. (1993). Gender differences in parent care: Demographic factors and same-gender preference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8(1), S9-S16.
- Harrison, M. J., & Neufeld, A. (1997). Women's experiences of barriers to support while caregiving.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8(6), 591-602.
- Horowitz, A. (1985). Family caregiving to the frail elderly.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5, 194-246.
- Ingersoll-Dayton, B., & Raschick, M. (2004). The costs and rewards of caregiving among aging spouses and adult children. *Family Relations*, 53, 317-325.
- Jette, A. M., Tennstedt, S., & Crawford, S. (1995). How does formal and informal community care affect nursing home use? *Journal of Gerontology*, 50, S42-S48.
- Kimmel, M. (2000). *The Gendered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abitsi, N., & Powers, D. V. (2002). Spousal motivations of care for demented older adults: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Greek and American female caregivers. *Journal of Aging Studies*, 16, 383-399.

- Kramer, M. K. (2005). Self-characterizations of adult female informal caregivers: Gender identity and the bearing of burden. *Research and Theory for Nursing Practice*, 19(2), 137-161.
- Lee, G., Dwyer, J., & Coward, R. (1992). Gender differences in parent care: Demographic factors and same-gender preferences. *Journal of Gerontology*, 48 (1), S9-S16.
- Lee, H., Kim, S., & You, K. (1997). Learning from other lands: Caring for elderly demented Korean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3(9), 21-31.
- Louderback, P. (2005). Elder care: A positive approach to caregiving.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Nurse Practitioners*, 12(3), 97-100.
- McDonnell, J. R., Abell, N., & Miller, J. (1991). Family members' willingness to care for people with AIDS: A psychosocial assessment model. *Social Work*, 36(1), 43-53.
- Martire, L. M., Stephens, M. A., & Townsend, A. L. (2000). Centrality of women's multiple roles: Beneficial and detrimental consequence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y and Aging*, 15(1), 148-156.
- Navaie-Waliser, M., Spriggs, A., & Feldman, P. (2002). Informal caregiving: Differential experiences by gender. *Medical Care*, 40(2), 1249-1259.
- Rose-Rego, S. K., Strauss, M. E., & Smyth, K. A. (1998).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well-being of wives and husbands caring for persons with Alzheimer's disease. *The Gerontologist*, 38(2), 224-230.
- Shirey, L., & Summer, L. (2000). Caregiving: Helping the elderly with activity limitation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n an Aging Society.
- Spector, R. E. (2000). Cultural diversity in health and illness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Spence, J. T., & Helmreich, R. L. (1979). On assessing "Androgyny". *Sex Roles*, 5, 721-738.
- Sugiura K., Ito M., Kutsumi, M., & Mikami, H. (2009). Gender differences in spousal caregiving in Japan.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4B(1), 147-157.
- Sung, K. (1994).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motivations for parent care: The case of Americans and Koreans. *Journal of Aging Studies*, 8, 195-209.
- Walker, A., & Pratt, C. (1991). Daughters help to mothers: Intergenerational aid versus caregiv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 841-849.
- Walker, A. (1992). Conceptual perspectives on gender and family caregiving. In J. W. Dwyer & R. T. Cowards (Eds.), *Gender, families and elder care* (pp.34-46). Newbury Park: Sage.
- Zarit, S. H., & Leitsch, S. A. (2001). Developing and evaluating community based intervention programs for Alzheimer's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Aging & Mental Health*, 5(S1), 84-98.
- Zenmore, S. E., Fiske, S. T., & Kim, H. J. (2000). Gender stereotypes and the dynamics of social interaction. In T. Eckes & H. M. Trautner (Eds.), *The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f gender* (pp.207-241). Mahwah, NJ:  
Earlbaum.

1 차원고접수 : 2010. 7. 26.

심사통과접수 : 2010. 9. 20.

최종원고접수 : 2010. 9. 23.

## Effects of College Student's Gender Role Characteristics and Familism on Filial Caregiving

Min Hee Kim

Choo Yon Hong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variables effecting willingness to provide filial caregiving among college students, the future caregivers of our society. 350 stud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exploring their willingness to provide filial caregiving, gender role characteristics of communion and agency, familism, and filial pi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re is a gender difference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n their willingness to provide filial caregiving. The femal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more willing to provide instrumental and physical care compared to male students. A hierarchical regression revealed that communion(gender role characteristics), filial piety, familism, sex, and number of siblings were predictors of willingness to provide care. In other words, higher familism, filial piety, and communion predicted higher willingness to provide filial care. Additionally female students were more willing than male students to provide filial care. However, gender role characteristics of agency was not a predictive factor.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separately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Filial piety and commun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male students' willingness to provide filial caregiving whereas familism, filial piety and commun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female students' willingness to provide filial caregiving. Lastly authors discuss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search.

*Key words* : caregiving willingness, gender role characteristics, agency, communion, familism, filial piety, gender difference